

페퍼다인 대학교서... 70시간 쉬지 않는 예배와 기도

다윗의 장막 70시간 기도회
7/27-30(월-목), 아름다운교회,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레비스탕스, 모퉁이들선교회
등 참여

'다윗의 장막 70시간 연속 기도회(David's Tent 70-Hour Prayer Conference)'가 오는 7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위치한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개최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의 이번 기도회는 세대와 교단을 초월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7월 27일 오후 2시에 시작해 30일 정오까지 총 70시간 동안 지속되며, GBC 미주복음방송, CABC,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모퉁이들선교회, 레비스탕스, 새누리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더 크로스처치, 아름다운 교회 등 20곳이 넘는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한다.

KNMC와 레비스탕스 (Levistance), TCC 예배팀이 예배를



왼쪽 윗줄부터 시계 방향으로, 더크로스처치 박호중 목사, 모퉁이들 선교회 이삭 목사, 임태호 선교사(SEED USA 대표), 주민호 목사, 지용주 목사(시라큐스 한인교회), 박종술 목사(Canada Regina 아름다운교회) ©기독일보

인도하며, 말씀세미나(CABC), 기도세미나(모퉁이들), 예배세미나(레비스탕스) 등 다양한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영어권 프로그램과 Youth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된다.

행사는 페퍼다인 대학교 엘킨스 강당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캠퍼스

기숙사에 머물며 기도와 예배에 함께 하게 된다. 온라인 등록은 이미 마감되었으나 당일 현장 등록(\$ 80, 점심·저녁 식사 포함)이 가능하다.

▲ 7/27 (월)은 민종기 목사의 교회예배로 시작해, 이상훈 목사의 “새로운 방향”, 손경일 목사의 “다음 세대”, 이수호 목사의 “진정한 회

개” 강의를 이어진다.

▲ 7/28 (화)에는 제임스 최 목사의 “선교의 회복”, 박은성, 지용주 목사 “말씀의 회복”, 최원일 목사 “예배의 회복”, 국윤권 목사 “이민교회”, 가명훈 목사 “관계의 회복”, 고태형 목사 “정결함의 회복”, 고승희 목사, 박호중 목사 “회복과 부흥”

강의가 이어진다.

▲ 셋째날(7/29 수)에는 김도일 목사, 남종성 교수, CMF 선교원, 이영선 목사, 이세영 목사, 구봉주 목사, 레비스탕스(Levistance), 이삭 목사(모퉁이들선교회), 진유철 목사, 임태호 선교사(SEED USA 대표)가 강사로 선다.

▲ 7/30(목)에는 박종술 목사(리자이나 아름다운교회), 김인철 목사, KNMC, 주민호 목사(침례교 해외선교회 회장)등이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기도회는 남가주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연합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드려 기도해야 할 때”라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가 이어지는 영적 운동이 남가주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다”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자세한 일정은 www.70pr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기독 청소년 절반 가까이, 복음에 대한 확신 없어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사)꿈이있는미래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리포트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 부모, 교사, 담임목사 등 다음세대 사역과 관련된 7개 집단 총 3,40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로 가정했을 때 성인예배의 현장 출석률은 2026년 2월 기준 97%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회학교의 회복도는 81%에 머물러 성인예배와의 회복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신앙 기초 역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 복음(예수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을 확실히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학생(57%)이 여학생(48%)보다 높은 확신을 보였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59%),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경우(75%)에 복음 확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정 내 신앙 환경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의 교회 만족과 불만족 요인 모두에서 ‘사역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회 출석 중고생의 전반적인 교회 만족도는 64%(5점 만점에 3.9점)였으며, 만족하는 이유로 ‘친구’(41%)에 이어 ‘목사님/전도사님’(36%)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만족하는 이유에서도 ‘교회 프로그램/

활동’(43%)에 이어 ‘목사님/전도사님’(27%)이 공동 2위로 꼽혀, 사역자의 자질과 태도가 교회학교 운영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독 청소년의 10명 중 6명꼴인 59%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교회의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느끼며 갈등하고 있었다. 모순을 느끼는 구체

적인 분야로는 ‘과학(진화/우주기원 등)’이 60%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노형구 기자 → 1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송금·환전

당일지급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한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l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부동산법 ■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K-Urban Like CSLB # 854389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 장 **최규남 박사**

복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More Missional • More Spiritual • More Glocal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원서접수 7월 31일(금) 까지
개강 8월 24일(월) 부터

학사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사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사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PhD in ICS)
- 교육학(PhD in ES)
- 상담심리학(PhD in CP)

International Track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교육 인가 기관
ats trocs BPPE

2026학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 입학 혜택 |

- 유학생 I-20 발행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 연방정부 학비지원 (FSA)
- 통신(Online)수업을 통한 학위 취득 가능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 입학 원서 접수 |
Admission Application

| GMU 웹사이트 |
www.gmu.ed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www.gmu.edu

admissions@gmu.edu

(714) 525-0088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차세대 목회자 21명 새벽 강단 이끈다

올해 가장 큰 변화...신학교 공식 협력 기관으로 참여

차세대 한인 목회 지도자 발굴과 영적 리더십 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 오렌지카운티 한인교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차세대 목회자 초청 새벽기도회’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21일간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지난 2일(목) OC교협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5회 차세대 목회자 초청 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의 비전과 계획을 나눴다.

1차부터 3차를 진행했던 OC교협 이사장 심상은 목사는 “5년 전 팬데믹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멈췄을 때,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 이 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OC교협 회장 최국현 목사는 올해 기도회를 통해 차세대 목회자를 세우는 이 사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교회와 신학교, 선배 목회자들의 동역 모델을 통해 한인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기홍 목사는 목회 현장을 전쟁터에 비유하



‘제5회 차세대 목회자 초청 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 기자 간담회에서 심상은 목사(OC교협 이사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기독교일보

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또 총 21일 중 새벽기도를 인도하게 될 개척교회 담임목사들의 기도과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승현 (Acts Global Church) 목사는 선배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 목회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김지원 목사는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불을 회복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우진 목사는 “연합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강정민 목사는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기도회의 가장 큰 변화는 4개 신학교가 공식 협력기관으로 합

계한다는 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월드미션대학교 임승진 총장, 프레스티지대학교 이상명 총장, 그레이스미션 대학교 이병구 부총장, ITS 이승현 총장이 참석해 차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8월 20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은혜한인교회 2층 세미나실에서 목회자세미나가 열린다.

차세대 21인 초청 새벽기도회
일정: 7/ 27-8/19 (평일 5:30 AM / 토 6:00 AM)
장소: 갈보리선교교회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2026 사랑의 크루즈’ 기념촬영. ©오픈뱅크

2026 사랑의 크루즈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사랑의 크루즈’ 행사가 7년 만에 다시 출항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2026 사랑의 크루즈’는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따뜻한 나눔으로 성공적인 항해를 마무리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방송, 엘리트투어, 애드뷰가 특별 후원한 ‘2026 사랑의 크루즈’는 지난 7월 10일 롱비치항을 출발해 멕시코 엔세나다를 거쳐 다시 롱비치로 돌아오는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랑의 크루즈’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특별 나눔 프로젝트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가족 여행의 기회를 제공했다.

7년 만에 부활한 올해 행사에는

우리방송의 프로그램 ‘캘리포니아’를 통해 100여 통이 넘는 신청서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심사와 가정 방문을 거쳐 최종 26가정, 총 108명이 선정됐다.

오픈뱅크 민 김 이사장과 오상교 행장, 엘리트투어의 빌리 장 대표, 우리방송 김동우 이사를 비롯한 총 26명의 스태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행사를 준비해 왔다.

올해 ‘사랑의 크루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객실을 제공했으며, 기항지인 멕시코 엔세나다에서는 시티투어와 함께 타고 점심식사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2026 전미 대학 리더십 콘퍼런스성료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말리부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열린 ‘2026 전미 대학 리더십 콘퍼런스(이하 NCLC 2026)’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1980년 시작된 NCLC는 미국 내 대표적인 한인 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씨앗을 심다’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선발된 18명의 한인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정치, 법률, 금융, 의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인 리더들과 교류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KAC 공동 창립자 던컨 리(Duncan Lee) 변호사의 시민참여 기초연설을 비롯해 폴 “PK” 김 콜라보레이션 대표의 소통 세션, 그리고 리더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임을 강조한 앤디 박(EY LA 매니징 파트너)의 커리어 전략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지니 장 누나스 누치 대표의 ‘눈치와 정’ 워크숍, 그레그 패튼(Greg Patton) USC 교수의 심층 리더십 트레이닝이 진행되었다.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열린 ‘2026 전미 대학 리더십 콘퍼런스’. © 한미연합회

특히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과 커뮤니티 치유를 위해 KAC가 제작한 단편 영화 ‘가치(Ggachi)’ 상영회와 앤드류 오 감독과의 대화, 그레이스 김전 한미연합회 전국 부이사장과의 특별 담화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전했다.

또한 LAPD 샤론 김(Sharon Kim) 수사관의 울림 있는 메시지와 지니 조(Dr. Jeannie Jo) 교수의 글로벌 네트워킹 특강을 비롯해, LA 시 검찰청 에드워드 한(Ed

Han) 부검사, 칠 공(Chil Kong) 연출가 겸 감독, 이웃케어 클리닉의 Kevin Riutzel 전문의, 빔보 베이커리 USA의 Aaron Pyon 등이 연사로 나서 다채로운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프로그램 후반에는 공공, 법조,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15여 명의 멘토들이 학생들과 멘토링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진로 상담과 조언을 제공했다.

KAC 문의: www.kacla.org

충현선교교회, 창립 41주년



충현선교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부흥회 ‘온 세상이 땅끝까지’ © 충현선교교회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가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아 오는 7월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를 초청해 창립기념 부흥회를 개최한다.

집회는 7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 첫 집회를 시작으로, 18일(토)에는 오전 5시 20분 새벽예배와 오후 7시 저녁집회, 19일(주일)에는 1-3부 예배를 통해 이어진다. 이와 함께 교육부(Kids & Youth)를 위한 특별 부흥회도 함께 열린다. 교육

부 집회는 ‘God’s Plan to Save the World’를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부 집회에는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부목사인 사무엘 한 목사와 임마누엘 김 목사(충현선교 교육부)가 강사로 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교회 측은 “창립 41주년을 맞아 ‘온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시 품고 다음세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손기철 박사가 인도하는

하나님나라와
치유 복음성회

KINGDOM OF GOD & HEALING GOSPEL REVIVAL

100년 전 치유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엔젤레스 템플에서,
이제 하나님나라 복음과 치유가
다시 선포됩니다!

손기철 박사

헤브리티치 미니스트리 대표
온누리교회 장로

! (현) 건신대학원대학교 신학과 석좌 교수

! (현) 건국대 명예교수

! (역임)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부총장

* 건신대학원대학교는 미국 포스퀘어 교단 소속의
교육부 인가 신학대학원(총장 전용환)입니다.

DATE

JULY 20-22, 2026

(Mon-Wed)

7:00 - 10:00 PM

LOCATION

ANGELUS TEMPLE

1100 Glendale Blvd.

Los Angeles, CA 90026

주최

HTM 헤브리티치 미니스트리 · 건신대학원대학교

후원

규장갓피플(주)FGK이재모피자

SKBC

Consulting Group Inc

United Maintenance Corporation

Esther Chong

Real Estate Group

Omega One Solutions Inc

KIMBOP LLC

TEACHING | PREACHING | HEALING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의 마중물 되길”

제3회 남가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AKUS 한미연합회 LA 주최로 지난 11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열려 북한 이탈주민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 자유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로 가는 여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기념식, 3부 구국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예배는 박세헌 목사(한기총 남가주지회 공동회장)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김영구 목사(한기총 남가주지회 사무총장)가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본문으로 성경봉독이 이어졌다. 이어 이중인 목사(미주통일광장기도회)가 ‘독립운동’을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최학량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기념식은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현춘삼 집사(NKIA 난민 탈북민 선교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제3회 남가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열렸다. © 기독일보

례와 기념영상 시청 후 환영사와 기념사, 축사, 간증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기념사를 전한 한기형 목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이 운동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 행사가 북한에 남아 있는 고향의 가족들과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고 했다.

간증을 한 최하나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돌보고 계시며,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민 자녀인 아리 현(ARI Hyun)의 간증도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아리 현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처음으로 고모와 큰아버지, 삼촌

등 가족들을 만난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아버지의 삶과 마음을 이번 방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목숨을 걸고 새 삶을 선택하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깊은 존

경과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의 용기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통일을 향한 큰 용기가 되고 있다.”

이어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통일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했다.

기념식에서는 이재권 장로(미주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임태랑 회장(자유통일 민주연합), 노명수 장로(OC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장), 샘 신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장학금 수여식과 장동신 목사(AKUS한민연합회 전임 사무총장)의 ‘한국의 애국활동과 윤석열 대통령 근황’ 소개, 합창 ‘별공의 햇빛’ 순서도 마련됐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구국기도회는 강태광 목사(한기총 남가주지회 공동회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사우스베이 목사회 7월 정기 조찬예배

사우스베이 목사회(회장 신용환 목사)는 지난 7월 8일 오전 8시 30분 토랜스 선한목자교회(이승혁 목사)에서 7월 정기 조찬예배를 드렸다.

신용환 목사의 인도로 드러진 예배에서 정총일 목사가 대표기도를 맡았다. 이어 이승혁 목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복음의 직분을 맡은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역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예배 후에는 교회가 마련한 조찬을 함께 나누며 목회 현장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공유했다. 목사회는 이날 처음 참석한 목회자들을 환영하고, 예배 장소와 식사를 제공한 토랜스 선한목자교회와 이승혁 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고 시간에는 상반기 사역 보고



©사우스베이 목사회 7월 정기 조찬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와 함께 하반기 주요 일정이 안내됐다. 사우스베이 목사회는 오는 9월 정기 조찬모임을 비롯해 목회자 친선대회와 11월 정기 조찬모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2월 6일 오후 5시 토랜스 제일장로교회에서 ‘2026 사우스베이 지역교회 연합 성탄 찬양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사회는 지역교회 성가대와 중창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11월 22일까지 받는다.

사우스베이 목사회는 앞으로도 지역교회 연합행사를 통해 사우스베이 지역 목회자들의 친교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셉 리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7주년 기념 영성세미나 개최

월드미션대학교가 개교 37주년을 맞아 오는 7월 20일(월) 오후 4시(미 서부시간)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춤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영성세미나를 개최한다.

렉시오 디비나는 초대교회와 수도원 전통에서 이어져 온 고전적인 성경 묵상과 기도의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과정을 통한 영성 훈련이다.

이번 세미나는 Graduate Theo-

logical Union(GTU)에서 기독교 영성학을 전공한 권혁일 한남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선다.

세미나는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과 동문은 물론 지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등 말씀 묵상과 영성 훈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강좌로 진행된다.

행사는 7월 20일(월) 오후 4시(미 서부시간)에 온라인으로 열리며, Zoom(ID: 213 388 3000)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개교 37주년 기념 영성세미나

주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춤으로의 초대”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고대 수도 전통에 기원을 둔 말씀 묵상과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세미나는 렉시오 디비나의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고 강력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시

2026년 7월 20일 (월) 오후 4시 (미서부시간)
7월 21일 (화) 오전 8시 (한국시간)

참가방법

ZOOM 213 388 3000

강사 권혁일 교수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 기독교 영성학 전공

모의유엔 프로그램 신입생 모집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프로그램에 참가할 중·고등학생을 모집한다. 모의유엔 프로그램은 글쓰기,

비판적 사고, 연설, 협상,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대회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진행되고, 정규 수

업은 매주 수요일 온라인으로 2시간 30분씩 운영되며, 모의유엔 대회 준비를 위한 세션이 매월 1회 한미연합회 사무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남가주 지역 학교

에 재학 중인 8학년부터 11학년의 중·고등학생 ▲12학년의 경우, 기존 KAC MUN 프로그램 참가자만 지원 가능

지원서: <https://kacla.org/model-united-nations-mun/>

본문이 말하게 하고, 청중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하라!

임도균 교수의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 세미나

→ T&T 내러티브 설교로 본문과 오늘을 잇다 ←

강의 내용

* 성경 스토리텔링의 원리와 설계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흐르는 원리를 이해하고 설교에 적용하는 방법

* T&T 내러티브 설교 작성법

단순형·대화형·대지형 설교 구조를 배우고 본문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구성

* 설교 준비 10단계 로드맵

본문 관찰부터 메시지 완성까지, 체계적인 설교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

* 실제 설교 사례 분석 및 적용

다양한 설계 설교 사례를 분석하고 나만의 설교에 적용하는 실습

서부 일정

일시

2026년 8월 3일(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살롱선교침례교회 (김영하 목사 사무)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주최

남가주 지방회

대상

설교의 변화를 원하는 목회자, 신학생, 교사

문의

714-280-5684

점심 제공

신청자 모집

QR 코드로 신청하세요! ▶

신간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

현장 구매 가능 (\$20)

임시 : 2026년 8월 3일(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후원 :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성경이야기가 설교가 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

“왕관의 무게는 기다림 속에서 준비된다” ... 신병옥 목사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당시 길선주 목사가 시작한 이래,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독교일보는 ‘GMC’(Global Methodist Church) 한미연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라클LA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

미라클LA교회 신병옥 목사는 7일 새벽예배에서 역대상 11장 1-9절을 본문으로 ‘왕관의 무게를 준비한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긴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 결국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며 “사울이 죽었다고 곧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며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암살되는 등 수많은 사건을 거친 뒤에도 다윗은 다시 7년 반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미라클LA교회 신병옥 목사. ©기독교일보

7년 반의 기다림과 연단, 하나님의 때에 통일왕으로 세워져 작은 순종이 쌓여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열매 맺어

시 성취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역대상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백성들은 다윗이 자신들과 한 혈육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사울 시대에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음을 고백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 기름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 목사는 다윗이 왕이 된 후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에도 주목하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 수도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언”이라며 “기존 세력의 기반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지키고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

데 그 성을 점령했고, 시온성은 결국 다윗성이 되었다”고 했다.

신 목사는 이어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이 거절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나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요나는 가장 가기 싫었던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를 다시 부르셨고, 결국 니느웨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거절이나 실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아람과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긴 연단을 거쳤다”며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먼저 깨뜨리시고 낮추신 뒤 사용하신다. 연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깨달아 돌이키는 사람은 복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뜻만 고집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본문 3절은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도 하나님께 ‘제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방

향과 사명을 알려주신다”며 “신앙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며 하나님은 작은 순종부터 사용하셔서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신 목사는 역대상 11장 9절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요리사 샘 김도 팬데믹 기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실력과 명성이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차곡차곡 쌓아 가시다가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다.

신 목사는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연단을 통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며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선한 일을 계속 쌓아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역설했다.

토마스 맹 기자

풀러신학교 이영희 박사, ‘관계 중심 홈리스 선교’ 연구로 수상

풀러신학교 Doctor of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을 졸업한 Lydia Younghee Yi 박사가 남가주 한인 홈리스 선교를 연구한 박사논문으로 ‘탁월한 성취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관계 형성과 수신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복음 전달 효과에 관한 연구: 남가주 코리안 아메리칸 홈리스 사역을 중심으로’이다.

이 연구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남가주 한인 교회들은 예배와 급식, 구제 활동을 통해 홈리스 사역을 지속하고 있

지만, 복음이 홈리스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Yi 박사는 이러한 한계의 원인으로 ‘화자 중심’ 복음 전달 방식을 지적했다. 사역자와 홈리스는 전혀 다른 삶의 틀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복음의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이해의 간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선교학적 접근을 제안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장 완전한 수신자 중심 소통의 모델로 제시하며, 복음은 상대방의 삶과 문화, 정서, 경험을 이해하는 관계 안에서 전달될 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Lydia Younghee Yi 박사(풀러신학교).

조사를 실시하고,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는 혼합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드러냈다. 첫째, 예배 가운데 나타나

는 반응과 실제 복음 이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둘째, 같은 한인 문화권 안에서도 사역자와 홈리스 사이에는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셋째, 사역자와 홈리스가 기대하는 관계 형성 방식 역시 크게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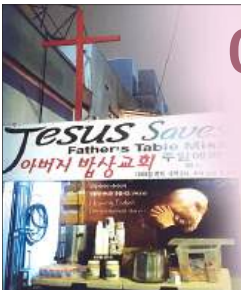
특히 연구는 홈리스들이 ‘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수치심과 반복된 실패에서 비롯된 학습된 무력감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많은 홈리스들에게, 복음이 삶의 변화와 정체성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대신,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로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Yi 박사는 ‘BRIDGE Seminar’라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역자들이 설교나 교육보다 먼저 홈리스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의 맥락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훈련 모델이다.

프로젝트 실행 결과, 사역자들이 수신자 중심의 관점으로 관계를 형성할수록 홈리스들의 복음 이해와 참여도가 높아지는 변화를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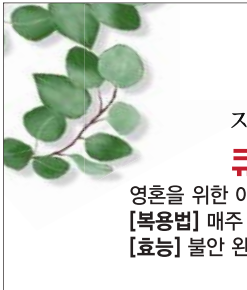
논문은 효과적인 홈리스 선교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구제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관계 형성과 경청,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선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내이선에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GIFT전인코칭전문학교

미국 최초 한국어 ICF 인증 교육기관

세계가 인정하는 자격증 과정 전문 라이프 코치



Zoom수업을 통한 전 세계 수강 가능



최고 수준의 교수진



자격증 시험 시 한국어 응시 가능



마음·신체·영상·관계를 통합한 독보적인 전인적 교육



Dr. Lydia Chun, Psy.D., PCC
[미국 공인 임상심리학 박사]

- 심리학 학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 임상심리학 석사 및 박사, Biola University Rosemead School of Psychology
- GIFT 전문상담소 대표
- 전 Azusa Pacific University 결혼 및 가족치료(MFT) 대학원 의례교수
- 국제코칭연맹(ICF) 전문코치(PCC)



Dr. Joseph Chun, M.D.
[내과, 알라자면역학 전문의]

- 학사,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 의학박사, UCLA 의과대학
- 관계심리학 연구, Trinity College of Graduate Studies
- 영성형성 연구, Biola University Institute for Spiritual Formation

당신의 성장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큰 의미와 보람이 있는 라이프 코치의 여정, GIFT가 함께합니다.



2026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2026년 9월 1일 개강!

지금 문의하세요
714-298-1115

www.giftcoachinginstitute.com
info@giftcoachinginstitute.com

FREE! 무료세미나 & 입학설명회



7/21 (화) 오후 7시 (PST)

QR코드로 신청하세요!
사전 신청자에게 Zoom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강신욱 M.D / 김남주 N.P / 김민성 M.D / 김영래 M.D / 김인자 M.D / 김진세 M.D / 김태원 M.D / 김학준 M.D
대니얼 김 M.D / 리사 김 M.D / 박수영 M.D / 박윤석 M.D / 성동진 M.D / 손동수 M.D / 송홍우 D.O / 신예용 D.O
안우성 M.D / 양진홍 M.D / 윤은주 M.D / 이광혁 M.D / 이용태 M.D / 이익준 M.D / 이현녕 M.D / 이현주 M.D
임대순 M.D / 임승하 M.D / 정만길 M.D / 제인 공 M.D / 조아라 M.D / 조이스 리 M.D / 찰스 김 M.D
프랭크 최 D.O / 허준 M.D / 헬렌 강 M.D / 황인용 M.D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이웃입니다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미주남침례 한인총회, 제45차 총회 폐막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총회장 이태경 목사)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플로리다주 올랜도 ‘Church at the Cross’ 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950명이 등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첫날(화): “다시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 은혜의 문을 열다
첫날 저녁 집회는 카리스워십(펜사콜라한미제일침례)의 경배와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민두식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카리스워십이 찬양을 이끌었다.

이어 정기총회 준비위원장이자 제2부총회장인 김섭리 목사(탐과새빛)가 환영 및 인사를 전했다. 그는 목회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목회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희생을 언급하며, 이번 총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장소를 제공한 처치 앳 더 크로스(Church at the Cross)의 손 스미스(Shawn Smith)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올랜도중앙침례교회 김선국 목사의 대표기도 후, 플로리다지방회 목회자 부부가 특송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을 불렀다. 이태경 총회장은 지난 1년간 총회를 섬겨온 소회를 밝히며 “제45차 정기총회를 맞아 참석해주신 목사님, 사모님과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한다”고 인사했다.

축사 순서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형제 교단 지도자들이 마음을 더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최인수 목사는 영상으로 축하를 전하였다. 그는 이번 총회가 지친 목양에서 벗어나 성령의 위로를 받고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불지피는 영적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피영민 총장이 축사와 함께 신학교 현황을 보고했다. 피 총장은 지난 3년간의 준비 끝에 국가 기관인증평가 30개 조항 중 29개를 통과했으나 재학생 충원율이 0.1% 부족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는 신학과 150명과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과 40명, 총 190명 정원을 종교계 대학으로 인정받아 국가장학금 신청 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기렸으며, 이태경 총회장의 공로패 증정과 제1부총회장 김은복 목사의 내외 귀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총회장 이태경 목사) 제45차 정기총회가 오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의 Church of the Cross에서 진행됐다. bpnews.us

빈 소개, 강승수 총무의 총회 대의원 소개가 이어졌다. 공로패는 20년 근속 목회자와 직전총회장 김영하 목사(살롬선교침례, sCA)에게 수여됐다.

발달장애 지체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숲(지휘 정미경)의 특주에 이어, 이태경 총회장이 빌립보서 3장 1~14절을 봉독했다.

첫날 저녁집회에서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송경원 목사가 “다시 그리스도를 기뻐하라”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율법주의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한 사역도 어느 순간 의무가 되어 버리면, 기쁨은 사라지고 부담 때문에 지치고 반아웃을 경험하게 된다.”며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주님과과의 친밀함을 강조했다.

송 목사는 “기쁨은 완벽함이나 성취에서 나오지 않고 방향에서 나온다”며 “교회 성장도, 교인 숫자도, 재정 잔고도 목회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 부르심의 상이 있는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다면 비록 느려도, 때로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친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며 “이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 매아리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설교 후 제37대 총회장 최영이 목사의 축도로 첫날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 둘째 날(수) 오전: “하나님 말씀의 능력” , 월드비전 총재의 영적 전쟁 메시지

둘째 날 Edgar Sandoval Sr. 총재(통역 강승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10여 년 전 비행기에서 갑자기 쓰러져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질환을 진단받았던 경험을 꺼냈다. 그는 그 시기를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시편 91편을 붙들었던 간증을 나누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본문으로 풀어내며, 성도가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손에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들고 싸우는 존재임을 역설했다.

산도발 총재는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영양실조 상태의 8개월 아기 ‘나필리’와, 과테말라에서 사고로 팔을 잃고 절망했다가 ‘성경적 역량 강화 세계관’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의 리더로 회복된 ‘오벨’의 사연을 소개하며, 가장 강력한 빈곤 해결책은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까지 3억 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과 희망, 미래를 전한다는 월드비전의 비전을 나누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호소하고 동역을 요청했다.

오전 기관 사역보고에는 NAMB와 한국 군경선교회가 함께했다.

북미주선교부(NAMB)의 샌드 네트워크 소속 제레미 신(Jeremy Sin) 선교사는 북미 곳곳에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한인 교회 개척의 필요가 있음을 전하며, 한인 교회들의 협동선교헌금(CP)과 기도, 교회 개척자 파송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한국침례교 군경선교회 사역자 최성균 목사가 한국 군선교현장을 소개했다.

최 목사는 “작년에 3,876명이 침례를 받았다”며 군에서 침례받은 장병들을 전역 후 지역 교회와 연결하는 사역과 한미 군목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

다고 전했다. 올해 7월 25일 침례식과 2027년 5,000명 장병 침례식 계획을 위한 기도와 동참을 호소했다. 제41차 총회장 이행보 목사의 축도로 오전 순서가 마무리됐다.

오전 집회 후에는 선택강의 세미나가 이어졌다. 여성교회 분과(전정민 사모, 조이 리 간사), 물론전도(차경태 목사), 침례교적 회의법(이철 목사), 은퇴 준비 재정(정웅교 목사), AI와 목회(고명천·김대성 목사), AI와 목회(고명천·김대성 목사), 중동 선교(IMB), 새가족 양육 시스템(김경도 목사), 라이프웨이 제자훈련(캔 브래들리)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다.

■ 둘째 날(수) 저녁: 선교축제, 국내·해외 선교부가 함께한 헌신의 밤

둘째 날 저녁은 선교축제로 꾸며졌다. 국내선교부 부장 송경원 목사는 현재 15개 교회를 매월 후원하고 있으며 코칭 사역을 병행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후원의 크고 작음보다 함께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라스베가 스제일침례교회 이병길 목사가 간증에 나섰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9명 남짓한 교회에 부임한 이 목사는, 30명까지 모이던 교회가 분열로 다시 세 사람만 남게 된 절망의 시간을 고백했다. 그때 총회장 이태경 목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코칭과 멘토링을 제안했고, 그 한 통의 전화가 “감람한 방에 들어온 한 줄기 빛”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코칭을 통해 ‘만남·변화·기

쁨’이라는 교회 비전을 세운 그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회복돼 캄보디아 단기선교와 선교사 파송까지 감당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결코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개척교회를 위한 중

보기도와 헌금기도가 드려졌고, 랜싱새소망교회 박병만 목사의 특송이 은혜를 더했다. 해외선교부 순서에서는 부장 정승룡 목사가 총회 소속 선교사 55명이 2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알리고, 정기총회에 함께한 파송·협력·IMB 선교사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정 목사는 해외선교부를 통한 선교헌금이 2024년 100만 불을 갓 넘긴 데 이어 지난해 188만 불에 이르렀다며, 동참하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파송받는 위성교 목사·위광혜 사모의 파송식이 진행됐다. 39년간 프리몬트 뉴라이프교회를 섬기고 은퇴하는 위성교 목사는 인사말에서 “37년 동안 사모가 목사 한 사람을 선교지 삼아 선교한 것 같다”며, 이제는 자신이 교육 선교사로 가는 아내를 뒤따라 외조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위광혜 사모는 자신이 대표로 섬겨온 청소년·아동 교육 선교단체 ‘YEN’(Youth Empowering Nation)을 소개하며, 목회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다가가는 사역에 동참을 요청했다. 해외선교부 이사들의 안수기도와 참석자들이 뜨겁게 중보하는 파송 기도도 순서가 있었고, 다함께 ‘파송의 노래’를 묵송아 찬양하면서 위성교 목사 부부를 축복하므로 파송식을 마무리했다.

미주침례신문 제공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오,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김

■ 발행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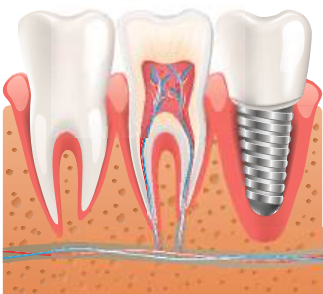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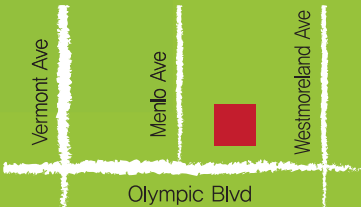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SMG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는
메디칼그룹이 또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이기에
SMG는 진료 이전에
당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사와 병원,
보험 네트워크를 연결한 이유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30년동안 당신을 지켜온 SMG 기록

5,500명의 의료진 | 폭넓은 병원 및 보험사 | 우수 의료 제공자



800.611.9862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벤처/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쿠바, 2021년 시위 이후 종교자유 탄압

국제 종교자유 단체 세계기독연대(CSW)가 쿠바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지 5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쿠바에서 종교자유 탄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1년 7월 11일 쿠바에서는 식량과 의약품 부족, 코로나19 방역 규제, 경제적 기회 부족, 정치적 자유 제한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시위 과정에서 최소 1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수백 명이 체포됐다.

CSW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도 이제는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SW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667건을 확인했다.

이 같은 침해는 특정 교단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정부에 공식 등록된 교회와 미등록 교회는 물론 모든 교단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 침해는 신앙을 이유로 한 아동 대상 언어폭력에서부터 자의적 구금, 강압적 심문, 감시, 협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

보고서는 공산당 당국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이유로 시민들을 처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악타스 데 아드베르텐시아(Actas de Advertencia)’라는 경고 문서를 활용해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금을 정당화하며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SW는 지난 6월 체포된 개신교 목회자



©pixabay

알렉시스 파드론 로렌소(Alexis Padrón Lorenzo) 목사의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파드론 로렌소 목사는 쿠바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해 왔으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뒤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그는 가족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구금돼 있으며, 심문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나 리 스탱글(Anna Lee Stangl) CSW 옹호국장이자 미주 담당 책임자는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다양한 계층의 쿠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지 5년이 지났지만, 쿠바 공산당은 그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정치·사회 개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바가 점점 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국가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쿠바 국민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널리 알리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남편 투옥됐지만 사명 멈추지 않아...



중국의 지하교인. ©오픈도어

중국 중부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지하교회를 섬기던 여성 지도자 ‘진이’(가명)는 2년 전 주일예배를 잊지 못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펼쳐 예배드리던 순간,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예배당으로 들이닥쳤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루 만에 풀려났지만, 교회 지도자였던 남편 장(가명)은 체포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진이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회상했다. 남편이 수감된 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했던 그녀는 지역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교회들 역시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신앙의 갈등 속에서 더욱 깊은 고립을 느꼈다. 그때 오픈도어(Open Doors)의 현지 사역자들이 꾸준히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지만, 세 번째 방문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대학생 시절 복음을 접한 진이는 남편과 함께 수년 동안 대학생과 청년 사역에 헌신해 왔다. 그녀는 “예전에 함께 예배드리던 청년들이 떠올랐다.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진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기로 결심했다. 이후 진이는 학생들을 한 명씩 만나 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몇몇 청년들이 소그룹 리더로 성장했고, 현재는 10개의 비밀 소그룹을 중심으로 7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예배와 성경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교회는 온라인 성경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다시 살아났다”며 “이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 교회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시행된 종교 관련 규정 이후 미성년자의 종교활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학생 사역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역에 따라 집행 강도는 다르지만, 학생들이 종교 모임에 참여할 경우 학업과 진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 현지 교회 지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건물에 다섯 곳의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승인한 삼자에국운동 교회만 남았다”며 “가정교회들은 작은 모임으로 흩어져 숨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역자는 “중국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둘러싼 싸움”이라며 “한때 활발했던 대학생 신앙공동체 대부분이 사라졌고, 일부만 비밀리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도어는 지난 2년 동안 진이에게 지속적인 방문과 제자훈련, 리더십 훈련을 제공해 왔다. 진이는 “여러분이 찾아와 준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석방 예정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감 중이다. 진이는 “남편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건강하기를 기도해 달라”며 “청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끝까지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 606-2345, (424) 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엔 09:00 오전 8시
3부예배 자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 3부: 2:00 pm (영어편)
주일예배 2부: 11:00 am 새벽예배: 화-토 (6:00 am)
교육부서: 11:00 am 수요일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문해로 걸아온 50년, 비전으로 걸아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녀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일종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중동본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말리아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일종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욱**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F), L A, CA 90019
T. (323) 610-6989, www.woorigachurch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 6:20 (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잡으려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매간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예배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청소년부,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토요일새벽찬양회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미국인 이스라엘 지지 감소세... 젊은 공화당원 · 복음주의자서 변화 조짐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소가 최근 미국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러한 응답이 절반가량에 달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약 1,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으며,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전개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는 이후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집계했으며, 이 수치는 올해 초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에 의해 대체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젊은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같은 연령대 민주당원들보다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했지만, 고령 공화당원들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전체에서는 13%만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집단학살로 규정했지만, 45세 미만에서는 약 20%가 집단학살이라고 응답한 반면 45세 이상에서는 약 10% 수준에 그쳐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또한 45세 미만 공화당원들은 고령층보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지원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공화당 전체의 60%는 현재 미국의 대 이스라엘 지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공화당원의 비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15%로 크게 감소했다.

이번 AP 조사 결과는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흐름과 유사하다.

지난 4월 발표된 미국 퓨리서치센터조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엑스(구 트위터)

에서는 미국 성인의 60%가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내 유대인과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49세 연령층에서는 70%가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이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도 57%에 달했다.

지난 3월 NBC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023년 이후 모든 연령층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18~34세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NBC는 이를 “유권자 인식의 중대한 변화(sea change)”라고 평가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5세 미만 응답자의 63%는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13%, 중립은 23%에 그쳤다.

젊은 미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출간된 ‘21세기 기독교 시몬주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자의 인식’에 소개된 일련의 조사에 따르면, 가자전쟁 이전부터 젊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을 종말론에서 핵심적인 존재로 보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반유대주의적 영향,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역할을 강조하는 세대주의의 전전년설과는 다른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노출 증가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미경 기자

美 필라델피아 대형 교회, 인신매매 근절 8K 걷기 대회 개최



필라델피아의 에는 태버너클 침례교회에서 열린 연례 ‘She’s My Sister Walk/Run’ 행사에 참가자들이 걷기 시작하고 있다. 페이스북 / 에는 태버너클 침례교회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대형 교회가 인신매매 근절을 촉구하는 대규모 8K 걷기 및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7월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흑인 성도가 주를 이루는 약 1만 5000명 규모의 에는 성막 침례교회는 토요일 오전 연례행사인 ‘슈즈 마이 시스터’ 걷기 대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교회의 서쪽 캠퍼스에서 출발해 동쪽 캠퍼스에 도착하는 8km 구간을 완주하며 인신매매 범죄의 심각성을 지역 사회에 알렸다.

에는 성막 침례교회의 엘린 조 윌러 사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이 연례행사를 꾸준히 주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신매매가 다른 먼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윌러 사모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모든 사람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 누구도 사고 팔리거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인신매매범들이 사회적 취약성을 악용함에 따라 흑인과 유색인종 여성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했다. 교회 측은 이번 대회가 인신매매 범죄를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지역 사회의 단호한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생존자들과 연대하고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공적인 약속이라는 설명이다.

에는 성막 침례교회는 참가자들이 8K 코스를 완주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범죄의 경고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 주최 측은 인식이 곧 최선의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범죄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온라인상에서의 범죄 수법을 인지하고 교사와 의료진이 행동의 변화나 위험 신호를 포착할 때 인신매매범들의 범행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걷기 대회는 에는 성막 침례교회가 지역 사회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시 운영 중인 ‘슈즈 마이 시스터 사역’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최승연 기자

이집트 콥트 예배처 공격...폭행

이집트 중부 미나(Minya)주 탈 알쿠이블리야(Tal Al-Quiblya) 마을의 콥트교회 예배처가 이슬람 주민들의 집단 습격을 받은 가운데, 폭행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 4명이 오히려 경찰에 체포됐다가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Unsplash/ludovico di giorgi

영국에 본부를 둔 종교자유 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는 이집트인권이니셔티브(EIPR)를 인용해 이번 사건이 최근 상이집트 지역인 미나주의 탈 알쿠이블리야 마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CSW에 따르면, 다수의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무슬림 주민들이 예배처 건물을 향해 돌을 던지며 종파적 모욕과 혐오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독교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예배처 건물과 본당 사제인 파블로스 카말(Pavlos Kamal) 신부의 차량도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진압했지만, 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남성 4명을 먼저 연행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를 뒤 석방됐다.

경찰은 일부 무슬림 주민들도 체포했지만 정확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마을에는 오랫동안 정식 교회 건물이 없어 신자들은 가정을 돌아가며 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나 이동 거리가 멀어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생기자, 주민들은 주택가 내 한 건물을 예배처로 개조해 사용해 왔다.

이 과정은 지역 치안 당국과 무슬림 주민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블로스 카말 신부는 이전 예배 때부터 일부 주민들의 선동과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했지만,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예방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CSW는 밝혔다.

멜빈 토머스(Mervyn Thomas) CSW 대표는 “이번 사건은 이 지역 기독교인들을 향한 또 하나의 심각한 공격이며, 군중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전까지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태아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법안 통과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정부가 태아를 임신 초기부터 행정적 목적상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태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출산 장려 정책과 생명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에반젤리컬포커스에 따르면, 새 법안에 의해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의료 서류를 제출할 경우, 태아를 가족 구성원 수에 포함해 각종 행정·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한 사립 유치원 보조금이나 학교 급식 지원 등의 혜택을 임신 기간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셋째 아이를 임신한 지 14주가 되면 ‘대가족’으로 인정돼 대중교통 할인 등 관련 혜택을 즉시 적용받는다.

마드리드는 스페인에서 이 같은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자치지역이다. 지역 정부는 출산을 제고와 가족 지원 확대를 목표로 법안을 마련했으며, 태아의 존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반면 낙태권을 지지하는 진영은 이번 법안이 자신들의 입법·이념적 입장과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보수 성향의 국민당(PP)이 이끄는 마드리드 자치정부가 여름 휴회 전 처리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향후 지역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 직후 국민당 전국 대표이자 페드로 산체스 총리 정부에 맞서는 제1야당 대표 알베르토 누네스 페이호



미겔 앙헬 가르시아 마르틴 마드리드 자치정부 장관. ©마드리드 자치주 의회

는 2027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임신 중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생명”이 경제적·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 단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당의 전국 대변인 보르하 쉴페르는 “해당 구상은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스페인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더 이상 영웅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둘러싼 지역 의회 토론에서도 정당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민당은 “이번 법이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이 아니라 청년층의 재정 지원과 보조금, 임대료 지원 접근성을 확대하는 제도로, 이념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노동당(PSOE)은 해당 법안을 가족의 실제 필요보다 ‘문화 전쟁’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PSOE는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상급 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미셀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매주목요일)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예배 8:00am / 주일 2부 예배 9:30am (각 교목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11:20am (각 교목부 예배)
EM(DSCP) 1부 9:30am / 2부 11:00am
한미청년부 1:30pm / 영아대학부 2pm
수요금요찬양 (수) 7:30pm
새벽예배 평일(월-금) 5:30am, (토) 6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 교회를 교회되게 ·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카데미)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미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아침예배 오후 7:30 한미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u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기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찹쌀만두**

**참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정진영 작가 이야기 사진전

정진영 작가의 이야기 사진전 ‘SomeLove in 8x10’이 오는 8월 1일(토)부터 8월 9일(일)까지 LA 한인타운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에서 열린다.

전시 제목인 ‘SomeLove(어떤 사랑)’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머무는 ‘그분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그분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사진과 글로 담아낸 45점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발견한 그분의 사랑, 감사와 삶의 의미를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정진영 작가는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사진을 부전공했으며, 이후 방송연출을 공부한 뒤 디자인과 방송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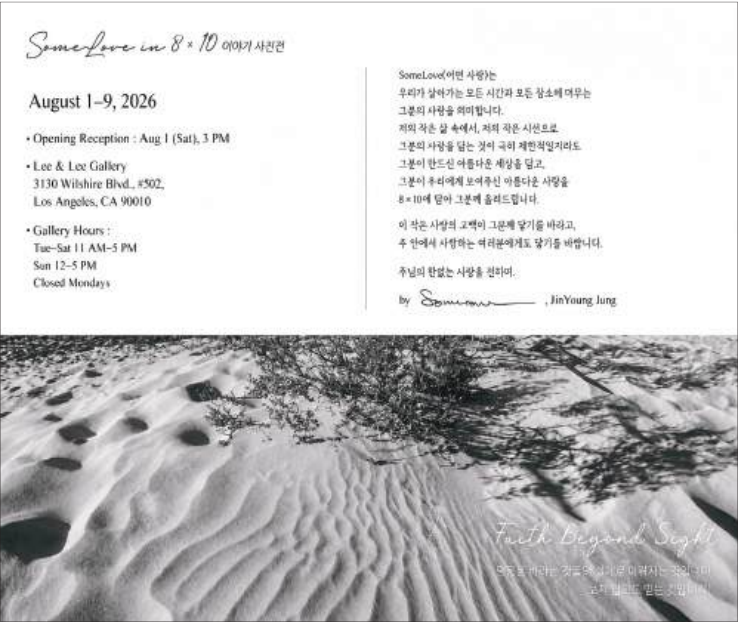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평

범한 순간 속에 담긴 아름다움과 의미를 사진으로 표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정진영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 사진과 함께 작가가 직접 쓴 글을 통해 삶 속에 스며있는 그분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프닝 리셉션은 8월 1일(토) 오후 3시에 진행되며, 관람 및 주차는 무료이다.

김민선 기자
〈갤러리 운영시간〉
화~토: 오전 11시 ~ 오후 5시
일: 오후 12시 ~ 오후 5시
월: 휴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7월 운영위원회 개최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한기홍 목사)는 7월 정기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 복음화와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7월 1일 오전 10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모임은 1부 예배와 2부 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송정명 목사는 시편 90편 12절을 본문으로 ‘날 계수를 통한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날마다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성시화 운동 역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기도로 이 도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성시화 사역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신임 운영위원으

로 렌드 김 장로와 에스더 김 장로를 소개했다.

또한 오는 7월 16일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8월 정기 운영위원회는 8월 5일 오전 10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기독과 연합을 통해 성시화운동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청소년...신앙고민이 있을 때 혼자 고민

→ 1면 기사 〈기독교 청소년〉에 이어서

하지만 이처럼 가치관의 충돌이나 신앙적 고민이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한다’(2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목회자나 교회 교사를 찾는 비율은 저조했다. 실제 교회학교 교사 중 성경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해, 청소년들의 지적·신앙적 방향을 교회가 제대로 소화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원 복음화의 대안으로 꼽히는 ‘학교기도모임’의 영향력도 확인됐다. 교회 출석 학생의 25%가 학교 내에 기도모임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실제 참석률을 반영한 전체 기독학생 대비 학교기도모임 참석률은 약 9%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학교기도모임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교회 신앙생활 활성도가 일반 기독 학생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다. ‘주일에 배 매주 참석률’의 경우 학교기도모임 참석 학생은 95%에 달해 일반 학생(60%)을 크게 앞질렀으며, 예배와 공과공부 외의 다른 교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66%) 역시 일반 학생(2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인구 절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교회학교 전문가들은 현재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가정과 교회 간의

연계 활동 부족’을 지목했다.

설문에 참여한 사역자(30%)와 담임목사(30%)는 이를 1순위 취약 영역으로 꼽았으며, 교사(20%)들 역시 공동 1위로 응답했다. 교회학교 교육이 주일 하루 동안 교회 안에서만 폐쇄적으로 이루어질 뿐, 평일 삶의 터전인 가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육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측은 리포트를 통해 “지금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보완이 아니라 신앙교육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패러다임 쉬프트’”라며 “교회와 가정을 체계적으로 묶어주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는 사람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요즘 나이 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특권도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생각하면, 나이 들은 무거운 짐이기 전에 은총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든 어른들을 만납니다. 저도 어느새 제법 나이가 들었습니다. 때로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절망과 소망의 경계를 오가며 살아가는 여정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날은 밝은 아침 햇살처럼 마음이 환해지고, 어떤 날은 짙은 안개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은 점점 가까이 느껴지고, 세상은 점점 낯설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두 세계의 경계 사이를 걷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언덕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절망과 소망의 경계를 잘 알았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시 42:5상). 그는 절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5하). 다윗은 낙심 중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망의 집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소망은 절망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소망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고, 눈물 가운데서 더욱 깊어 집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롬 15:13).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소망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갈 수 있을까요?

첫째, 소망의 집은 약속의 말씀으로 짓는 집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 백 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사람을 통해 아들을 얻는 소망을 품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몸은 노쇠했고, 사라의 태도 단란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

속을 신뢰했고, 오래 참음으로 놀라운 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하는 중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소망의 집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와 굴에서 소망의 집을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

나이 드는 법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렘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애 3:22).

둘째, 소망의 집은 작은 순종의 벽돌로 짓는 집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한꺼번에 집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쌓아 올립니다. 소망의 집도 그렇습니다. 오늘 붙드는 말씀 한 구절, 오늘 드리는 기도 한마디, 오늘 흘리는 눈물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소망의 벽돌이 됩니다.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소망의 집을 지어 가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작은 재료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청사진만 그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라는 벽돌을 쌓고, 기도라는 창문을 달고, 감사의 문을 세우며, 사랑이라는 지붕을 엮습니다. 셋째, 소망의 집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짓는 집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영원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소망을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소망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깊은 확신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절망과 소망 사이를 오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언덕 위에 벽돌을 하나씩 들어 올려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비록 세월이 흐르고 육신이 약해져도 소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집의 기초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연약함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지으며 살아 왔습니다.

절망의 언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언덕의 높이를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지은 가장 아름다운 집은 세상의 집이 아니라 눈물과 기도와 믿음으로 지어온 소망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유철 칼럼

탁월함의 복과 2중 자기부인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도 탁월했습니다. 낮은 삶 노예들 중에서도 탁월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살벌한 감옥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의 한 나라인 애굽의 궁전에서 수많은 박사들과 정치인들과 뛰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탁월했습니다. 바로 왕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꿈을 꾸었는데도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때도 요셉이 탁월하게 해석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만한 대답을 하시리이다”(창41:15-16) 요셉의 탁월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탁월함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피폐해있는데 탁월함의 복을 주시면 계속 끝까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운이 좋아서 되는 로또 당첨과 같은 1회적인 복은 속사람과 관계없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꾸준한 복, 샘 결의 가지처럼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은 영혼이 피폐해 있는데 생길 수가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이나 공동체, 건강한 인간관계, 행복한 일터와 사명자의 삶과 같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탁월함은 성령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

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2:10)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데도 예루살렘의 잘난 사람들조차 모두가 놀라는 탁월함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
참된 탁월함의 시작

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요셉과 동일하게 탁월함의 축복을 누리려면 과정이 성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 낮은 일을 맡아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성실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탁월함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셨습니다. 성실한 과정의 탁월함을 내가 증거 하면 결과의 탁월함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과정의 성실함을 위

해서는 자기중심성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16:24) 자신의 성공, 명예, 욕망, 계획 등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부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끝까지 자기중심성을 이겨내는 과정의 성실함을 이루기 위해 ‘2중 자기부인’을 말하였습니다. 자기부인 후 두 번째 자기 부인, 즉 자기의 자기 부인마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며 이렇게 회생했다. 나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도 헌신적으로 해냈다. 나는 이번에 자기부인을 잘했다.” 등 자신의 경험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값아춤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귀한 전교인수련회를 잘 마친 후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위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2중 자기부인’의 깊은 신앙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Trust in God!” 샬롬!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SINCE 1977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l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9547 EXT.#112/admin.korea@itsla.edu

THIS. IS.

RUACH.

The Voice — Praise Concert

Venue

The Novo
8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Dates

Sat. 8.01 — 6:30PM
Sun. 8.02 — 6:30PM

Tickets

\$50 & \$60
—
213.357.1565
562.766.9494

Pastors

강준민 목사 국윤권 목사
고창현 목사 박은성 목사
구봉주 목사 조셉리 목사

Special guests



소향



선

주최 주관 Loving Worship

대표 목사 Joseph Lee

Producer Troy Choi



안승오 칼럼

극장 국가 북한과 평양이라는 ‘쇼윈도’의 비극



안승오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선교신학

북한 체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각적 상징물은 단연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이다. 수만 명의 참가자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화려한 스펙터클은 대내외적인 체제 결속의 핵심 기제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공연의 이면에는 체제가 요구하는 완벽한 인간 기계화와 철저한 기만전술이 숨겨져 있다.

북한에서 집단체조는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다. 김정일은 일찍이 담화를 통해 집단체조를 청소년들을 집단주의 정신을 가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핵심 수단으로 정의했다. 즉, 개인이 집단과 수령을 위해 완벽히 복종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정치적 연극인 것이다. 특히 수만 명의 어린 학생들이 뜨거운 피약벌 아

래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거대한 초상화를 만들어내는 ‘배경대(카드섹션)’는 명백한 아동 착취이자 인권 침해다. 대량의 인간을 부품화하여 연출하는 이 스펙터클은 결국 북한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극장’이며, 인민들은 오직 수령의 영광을 위해 고용된 무급의 ‘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러한 극장 국가의 연극 무대는 경기장 내부를 넘어 수도 ‘평양’이라는 도시 전체로 확장된다. 평양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

극장 국가의 민낯
거짓으로 세워진 무대
쇼윈도우 뒤의 진실

하고 수령의 영도를 과시하기 위해 정교하게 기획된 거대한 ‘쇼윈도우 도시’다. 이곳에 거주할 자격은 철저한 성분 조사와 사상 검증을 거친 ‘핵심계층’에게만 부여되며, 체제의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철저히 배제된다. 즉 평양이라는 도시는 삶의 터전이 아닌 선별된 배우들의 세트장인 셈이다.

최근 평양에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눈부신 경제 성장의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전형적인 ‘위장 도시’다. 외신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도로변 건물의 정면은

화려하게 도색하지만, 밤이 되면 전력 부족으로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기고 오직 주체사상탑만이 불을 밝힌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고층 주민들이 걸어 다녀야 하는 실상, 외빈이 방문할 때만 상점에 가짜 상품을 진열했다가 행사 후에 회수하는 촌극은 평양 시민들에게 강요된 ‘행복한 사회주의 낙원의 주민’이라는 배역의 무게를 보여준다.

더욱 잔혹한 진실은 이 쇼윈도의 차단막 뒤에 가려진 ‘지방’의 실상이다. 북한 당국은 평양이라는 가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평양에 집중 투입해 왔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평양의 배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비극을 겪었다.

오늘날에도 평양과 지방의 의료, 주거, 교육 격차는 극심하며, 지방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양 시민만 조선 사람인가”라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 나온다. 당국은 이 남루한 실상이 평양으로 유입되거나 대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이동의 자유 통제와 검문소 운영으로 지방을 철저히 격리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한 연극은 없다. 장마당을 통해 유입된 남한의 드라마와 외부 정보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지상낙원’이 아니라 잘 짜인 ‘거짓말의 감옥’

이었음을 자각하게 만들고 있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과 아리랑 공연의 일사불란함으로도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경제적 파탄과 민생고는, 보여주기 위한 삶을 강요해 온 북한 체제의 모순이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연출하는 화려한 선전전의 독소와 기만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 평양이라는 쇼윈도우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무대 뒤편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과

북한, 거대한 연극 국가
화려한 무대, 숨겨진 현실
선전과 현실 사이
가짜 낙원의 진실
체제가 만든 거대한 무대
거짓말로 유지되는 체제

참혹한 실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극장 국가의 가짜 현실을 걷어내고 북한의 진짜 얼굴을 직시하는 일, 그리고 소외된 북한 동포들에게 끊임없이 진실의 빛을 보내는 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앞당기는 첫 걸음이다. 거짓으로 세워진 극장 국가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제이 팍 칼럼

영화 《십계》와 함께 남은 나의 시간들



제이 팍 의장
피코 유니온 주민의회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하지만 오래전 보았던 영화 한 편의 감동은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 바로 십계이다. 그 영화는 단순한 성경 영화가 아니었다. 광활한 사막과 웅장한 음악, 그리고 흥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어린 시절의 내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특히 찰튼 헤스톤이 연기한 모세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 삶 속에는 영화 《십계》와 연결된 작은 인연들이 오래도록 추억처럼 남아 있다. 대학 시절, 나는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

부를 하고 저녁에는 할리우드의 한 스토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민 초기였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바빴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가게를 찾아와 물건을 고른 뒤 계산대 앞에 섰다. 그런데 현금이 없었던 그는 크레딧카드로 계산하려 했다. 문제는 가게 주인이 평소 “카드를 받지 말라”고 엄하게 이야기해 두었다는 점이었다.

손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유명한 배우라고 설명했지만, 당시의 나는 할리우드 배우들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는 조금 당황한 듯했고, 나 역시 어쩔 줄 몰라 서 있었다. 결국 나는 그분을 믿고 물건을 그냥 드렸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영화 《십계》에서 조슈아역을 맡았던 배우 존 데릭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얼마나 허탈하고도 웃음이 났던지 모른다. 모두가 알아보는 유명 배우를 나만 몰라봤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둘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어쩌면 그때의 순수하고 어설퍼던 젊은 시절이 있었기에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

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일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며 나는 한 가지 작은 결심을 했다. “언젠가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Joshua라고 지어야겠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 가정에도 아이들이 태어났다. 첫째 딸에 이어 둘째가 아들로 태어났을 때,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름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은 Joshua가 되었다. 젊은 시절 우연히 만났던 영화 속 배우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있던 《십계》의 감동이 그 이름 안에 조용히 담기게 된 것이다. 그 후 또 하나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다. 아들 Joshua가 여섯 살쯤 되었을 때였다.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에서 찰튼 헤스톤의 북 사인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아내와 딸, 그리고 Joshua를 데리고 그곳을 찾았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다. 어린 Joshua가 책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자, 찰튼 헤스톤은 부드러운 목

소리로 물었다. > “What is your name, son?” 아들은 또박또박 대답했다. > “My name is Joshua.”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 “My name is Moses.”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영화 속에서 모세와 조슈아가 다시 만나는 장면 같았다.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은 내 기억 속에 오래도록 빛나는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개인의 추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게는 영화와 인생, 그리고 가족의 시간이 조용히 이어진 특별한 이야기이다. 흥해를 가르며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조슈아처럼, 나 역시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드린다. 내 아들 Joshua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과 책임을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을 담담하고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그리고 나 또한 지나간 세월의 추억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오래 간직하고 싶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자주 묻는 질문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세계 최초 역노화(Reverse Aging) 기술! 1년 안에 10년 이상 젊어지는 놀라운 기술력! 이제 **북미**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수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TeloYouth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하여 뉴욕으로 확장!
이제 북미 시장을 함께 개척할 리더와 사업가를 찾습니다.



왜 TeloYouth인가?

세계 최초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술 기반 젊음 회복 프로그램

- ✓ FTE(부화수정란 추출물) 100년의 역사
- ✓ 100만 명 이상 젊음 회복 프로그램 경험
- ✓ 수천 건의 놀라운 체험 사례와 객관적인 의료 데이터
- ✓ 12가지 국제 품질 인증
- ✓ 6가지 임상 연구
-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 91% 재구매율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수많은 사람들이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혈당 및 혈압 관리
- 콜레스테롤 관리
- 에너지 및 활력 증진
- 기억력 및 인지기능 향상
- 수면의 질 향상
- 면역력 강화
- 장 건강 개선
- 간 건강 및 신장 건강 관리
- 전립선 건강
- 관절 및 근육 건강
- 근력 및 운동 능력 향상
- 스트레스 관리
- 건강한 체중 관리
- 신진대사 활성화
- 만성 피로 감소
- 삶의 질 향상

6가지 임상 연구

- ✓ 코티솔(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 ✓ 우울감 개선
- ✓ 근력 향상
- ✓ 성기능 만족도 향상
- ✓ 줄기세포 활성화 및 생산 증가
- ✓ 인지기능 향상



LA, NY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NY 디모스연회장

LA 가든스윙트호텔

사람을 살리는 사업
건강을 나누는 사업
미래를 만드는 사업

건강과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목회자, 사업가, 전문직, 리더, 은퇴자,
그리고 더 큰 비전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비즈니스 기회

AI 혁명에 이어 이제는 **장수혁명 시대**입니다.
건강 산업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거대한 시장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TeloYouth는 뉴욕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북미 시장을 선점할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합니다.
지금이 북미 시장의 **골든 타임**입니다.

문의

Paul Kim
Chief Coach

레이첼 코치

☎ 714-732-8477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com
www.teloyouthkorean.com
☎ 714-851-8035

“생명을 살리는 사업, 장수혁명을 이끄는 비전, 이제 북미에서 시작됩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임마누엘, 그리스·로마 관점에서 낯설게 읽다

성경 이해에 도움 주는 그리스·로마 신화 읽기?



인간과 함께한 신

이상환 | 학영 | 256쪽

너무 익숙해진 성경 본문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책이다

저자 이상환 교수는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라는 배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여준다

신화 속 신들은 인간의 모습만 흉내 낸 반면,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고통과 연약함을 온전히 경험하셨다

바로 이 차이가 복음의 충격과 감동을 낳는다

저자는 학문적 깊이와 문학적 상상력을 절묘하게 엮어, 독자들이 교리의 틀을 넘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안내한다

이상환 교수의 저서 『인간과 함께한 신』은 신약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 독특하고도 참신한 시각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성경 주해나 신학적 연구는 성경 자체의 문맥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교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이상환 교수는 그리스-로마 신화와 문학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성경 해석서와 차별화된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시도가 아니라, 성경의 본래 메시지를 현대 독자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로 작용한다.

특히 그리스-로마 세계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고 수용된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실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저자는 이러한 학문적 시도를 복음적 신앙과의 긴장 없이 풀어내며, 신화와 복음 사이의 충돌보다는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책이 가진 가장 큰 의의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의 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 준다는 점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화는 이교적이고 우상적인 체계로만 인식된다. 따라서 신화와 복음을 연결시키는 시도는 오히려 거부감이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상환 교수는 이러한 두려움을 불필요한 장벽으로 규정하고, 성경과 신화의 세계가 만나는 지점을 신학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신화적 세계가 복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빛 아래서 인간의 종교적 갈망과 문화적 산물을 이해할 수 있는 창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저자의 시도는 성경 해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학문적이면서도 목회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 그리스-로마 세계였음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바울과 초기 교회는 모두 헬레니즘적 문화와 로마 제국의 권력 질서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갔다. 따라서 당시 독자들에게 성경의 언어와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신화적 세계와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예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예수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며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라는 표현 속에서, 저자는 당시의 암브로시아와 넥타르의 전통을 말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대했던 천상의 양식을 대하는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점을 무시한 채 성경을 단순히 교리적 언어로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당시의 맥락을 놓치는 위험을 낳는다. 이상환 교수는 바로 이 지점을 짚어내며, 신화적 언어와 기독교 복음 사이의 긴밀한 대화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신화와 복음을 단순히 비교하거나 혼합하지 않고, 복음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즉 신화가 제공하는 풍부한 이미지와 이야기의 틀을 성경의 메시지 이해에 활용하되, 그 자체를 복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화 속에 담긴 인간의 종교적 갈망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이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류하는 이야기는, 인간과 함께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되면서 인간의 근원적 바람이 오직 복음 안에서 실현됨을 드러낸다. 이는 신화와 복음을 충돌시키지 않고, 복음이 신화를 품고 넘어서며 인간의 갈망을 성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탁월한 해석이다.

또 이 책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선입견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 많은 신자들은 신화에 대해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신화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이상환 교수는 학문적 근거와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이러한 거부감을 줄여 나간다. 그는 신



▲신화의 땅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픽사베이

화와 성경을 대립적으로 두기보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적 언어 속에서 복음을 이해했는지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신화적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성경의 깊이를 새롭게 경험하게 만드는 문을 열어 준다.

이 책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강점은 문학적 접근이다. 성경은 본래 이야기와 비유, 상징으로 가득한 문학적 텍스트다. 그러나 현대 신학과 교회 는 때로 성경을 지나치게 교리적·논리적으로만 다루어 성경의 문학적성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다.

이상환 교수는 신화와의 대화를 통해 성경이 지닌 문학적 힘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는 성경을 단순한

교리서나 윤리 교본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독자들은 성경의 문학적 세계가 그리스-로마 신화의 문학과 만날 때, 복음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욱 빛나고 풍성하게 드러남을 체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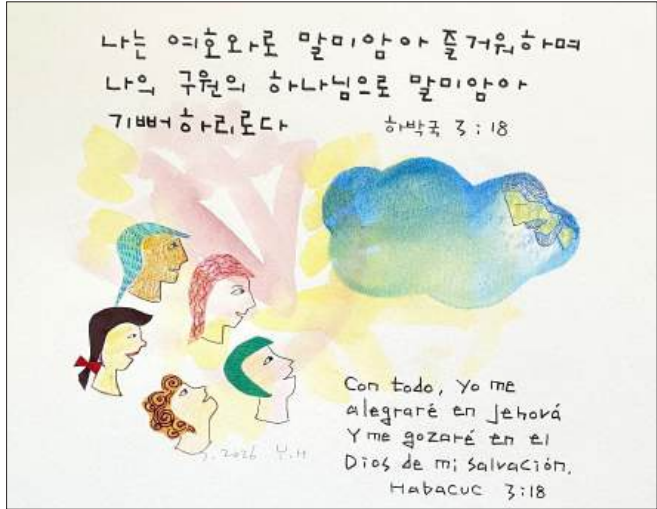
이상환 교수의 저작은 단순한 신학적 논문이 아니라, 목회 현장과 신앙 공동체에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신학을 연구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유익하다.

특히 설교자는 이 책을 통해 성경 본문을 당시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해석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생령 투근 설령탕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GOOD MORNING SPECIAL EVERYDAY 7AM ~ 10AM

표고우거지해장국 \$10.96 +tax

굿모닝스페셜

통근설령탕 \$10.96 +tax

북어국 \$10.96 +tax

간기가 좋아질 때까지!

주문시 “서민행복”으로 오더해주세요.

5주년 기념 투고스페셜 설령탕 \$10.99 Tax 포함가
설령탕, 백미, 김치, 짬두기
10AM ~ 2PM

시니어를 위한 ‘어른철 보양식’
삼계탕 스페셜
\$19.95 Reg. → \$14.99 +tax
7월 1일 ~ 8월 31일

*광고에 쓰인 음식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Uber Eats 딜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현대판 우상인 AI” … 기독교인들이 분별해야 할 것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한국기독교사회와 공동으로 11일 오후 용산역 ITX 제7회의실에서 ‘현대판 우상인 AI 시대에 크리스천의 분별과 실천’을 주제로 7월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성호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강 교수는 공학자의 시선으로 AI의 실제 능력과 한계, 작동 원리를 살피고, 신학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예배의 대상을, 윤리학자의 시선으로는 AI 시대에 필요한 분별과 실천을 크리스천의 삶과 연결해 제시했다.

발표는 ‘이미 우리 곁에 온 AI’, ‘왜 현대판 우상인가’, ‘기계 너머의 인간’, ‘침된 미덕’, ‘분별의 틀’, ‘일상 크리스천의 분별’, ‘실천의 세 지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성호 교수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7월 콜로키움에서 강연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AI를 쓸 것인가 아닌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강 교수는 AI로 인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하며 AI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넘어, AI에 의해 재편되는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이 A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AI를 활용하면서 타월화와 일상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AI가 인공지능에서 공감감과 인공지능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크리스천은 단순한 도구 사용자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AI를 효율과 예측, 동반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짓된 안식처’로 분석하며 “속도와 계산, 최적화가 시간과 기다림, 기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섭리보다 알고리즘에 의지하는 것, 인공지능 친밀함이 인간관계와 임재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며 “인간의 고유성은 지능이나 계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데 있다.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인간의 특징은 관계성, 청지기직, 도덕성, 책임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AI는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의 언어와 감정을 모방할 수 있지만 영혼과 양심, 책임 있는 인격을 지닐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는 취약성과 선물 받음, 함께함이다. 인간의 약함과 유한성은 기도와 기다림, 사랑이 가능한 자리, 지성과 감성, 신체와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로, 함께함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신학적 자리”라고 했다.

AI가 모방할 수 없는 ‘침된 미덕’

강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침된 미덕’ 개념을 통해 AI와 인간의 차이를 설명하며 AI는 효율적인 시스템과 유창한 언어, 조화로운 음악, 논리적인 글을 만들고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중심성을 결여한 ‘이차적 아름다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침된 미덕은 성령이 인간

의 마음에 심는 새로운 영적 감각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자비, 죄의 비참함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감각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AI는 사랑과 위로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마음과 성령의 임재를 소유하거나 영혼의 고통에 진실하게 공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크리스천의 사명은 이차적 아름다움을 확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침된 미덕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고 했다.

인간 개입 · 책임성 · 투명성 강조

강 교수는 AI 시대에 지켜야 할 핵심 가치로 인격의 변형, 관계의 변형, 소외된 사람과의 연대, 창조 세계 돌봄, 공동선 기여를 제시했다. 그는 AI 사용자의 책임으로는 인간의 개입과 책임성, 투명성을 꼽았다. 중요한 결정에는 의미 있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며, AI가 아닌 이를 개발하고 사용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사용 사실과 이유를 밝히고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일상생활에서는 SNS와 알고리즘이 만드는 필터 버블, 짧은 자극과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지는 ‘도파민 예배’, AI 생성 콘텐츠 증가에 따른 진리의 파편화를 경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하루의 첫 15분을 성경으로 시작하고, 알고리즘이 보여주지 않는 반대편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접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다. AI 생성 콘텐츠는 출처가 없는 인용처럼 다루고, 주 1회 디지털 안식일을 지키며 SNS보다 몸과 관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컴패니언은 단순한 기술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부재가 만들어낸 구조적 외로움의 증상이다. 반대나 저항이 없는 관계는 인격을 성장시키지 못하며, 고백과 회개 없이 위로만 제공하는 대화는 죄를 가릴 수 있다”며 “외로움을 AI로 달래기보다 공동체로 나아가고, 성경 상담과 기도 등 영혼의 문제를 AI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 AI는 사역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영적 동반자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 AI, ‘위임’과 ‘방기’ 구분해야

강 교수는 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AI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과 인간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상 판독 보조와 이상 소견 제시, 문헌 검색, 전자의무기록 요약, 약물 상호작용 알림, 행정 업무 자동화 등은 AI에 맡길 수 있는 영역으로 제시했다. 반면 최종 진단과 치료 결정, 환자에게 질병을 알리고 함께 아파하는 일, 말기 환자와 가족이 나누는 대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윤리적 판단은 AI에 넘길 수 없는 의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와 생명공학의 통해 불멸을 추구하는 트랜스휴머니즘적 흐름은 현대판 바벨탑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적 실천으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훈련, 디지털 안식일, 산책과 식탁·손편지·눈맞춤 등 몸의 회복, AI에 무엇을 묻는지를 점검하는 ‘프롬프트 신학’, 자신이 거쳐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정과 소그룹에는 식탁에서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 규칙과 화면 없는 시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회에는 AI 문해력 교육과 AI 사용 지침 마련, 설교와 상담에서 위임과 방기의 기준을 공유하며 성도의 개인정보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공적 영역에서는 AI로 정보와 기회의 격차를 겪는 사람, 알고리즘의 편향으로 차별받는 사람,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AI 의존으로 외로움이 깊어진 사람의 곁에 서야 한다”며 “AI 시대의 크리스천은 AI에 대한 두려움과 환상을 모두 넘어 분별해야 한다. 취약성과 선물 받음, 함께함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회복하고, 침된 미덕의 공동체를 세우며, 일터와 의료 현장에서 생명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지난해 전 세계 성경 2,240만 부 반포... 단편 등 포함하면 1억4,830만 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240만 부 이상의 성경전서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과 단편 성서, 어린이 성서 등을 모두 합산한 전체 성서 반포량은 1억4,830만 부를 넘어섰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통계를 14일 공개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올해로 설립 80주년을 맞이했다. 디르크 게버스(Dirk Gevers)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총무는 보고서를 통해 “1946년 연합회 설립 이래 지난 80년 동안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사역해 왔다”라며 “80년간 누적 250억 부의 성경을 보급한 것은 연합회 헌신이 이룬 결실”이라고 밝혔다.

게버스 총무는 성서 보급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매년 수억 명에게 전달되는 인쇄 성경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경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성경의 전달 형식과 관계없이 한 사람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경 보급 사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종교의 자유 허용 이후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으나 성경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몽골을 꼽았다. 몽골은 수도 외곽 지역의 교회 부족과 성경 입수의 어려움으로 초신자 교육 및 제자 양육에 지장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몽골성서공회는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경 보급에 집

중하는 한편, 현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준어 성경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바야르 마그나이 몽골성서공회 총무는 “몽골은 전통적으로 불교세가 강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성경을 향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라며 현지 성경 보급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노형구 기자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PRESENT

2026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썸머캠프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다 못 보내도 백만장자로는 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재정관 설립과 지혜로운 재정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재정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튼튼한 재정개념, 돈나무 한그루씩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클래스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보호자 참석을 환영합니다.

LOS ANGELES
8월 4일 (화) 10시~4시
WISE CALIFORNIA FINANCE
3435 WILSHIRE BLVD., 14FL
LA, CA 90010 (에쿼티빌빌딩)

IRVINE
8월 6일 (목) 10시~4시
엘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REGISTRATION FEE \$100>
REGISTER HERE!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머니컨셉 #영화속 돈 이야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정 #손님들 실제 케이스 적용까지 설명합니다.

626.827.9599
SYM00NMONEYTALK@GMAIL.COM

참가자 학생 2명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중앙일보

라디오서울

BMO

radiokOREA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DIRECT PAY PROGRAM 핵심 혜택



**최대 40%
현금 환급**

설치 비용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세금이 없어도
OK!**

비영리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



**전기요금
절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운영 예산
부담 감소



**친환경 &
ESG 실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상담받고 최대 40% 절감혜택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10만 불짜리 솔라 공사를
**실제 6만 불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40% 다이어트, 효과는 100% 그대로!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L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wa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 T S
SOLAR
DESIGN**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213-500-8000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 전문 엔지니어 상담

☑ 맞춤형 설계 & 시공

☑ 정부 인센티브 최대 활용

☑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